

2006년 8월 1일 불국사에서 열린 염불정진대회에서 종상 스님, 김재일 법사 등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전국염불만일회는 2015년 제13회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사)4월회 초대회장, 공동체의식개혁협의회 상임의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3·1문화재단 이사장, 홍익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4년 8월 31일 송광사에서 열린 제27차 염불정진대회의 단체사진.



2025년 제28차 염불정진대회에서 정토법문을 하고 있는 안동일 회장.

지금 마음을 부처님처럼…"오직 나무아미타불"

특별인터뷰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안동일 전국염불만일회장은 늘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또 외웠다.

58세에 시작한 염불 정진은 85세가 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회향은 12월 21일. 염불로 쌓아 온 27년 5개월의 시간은 이제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다.

염불은 부처님의 모습과 공덕을 떠올리며 명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불교 수행법이다.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거나,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역사적으로는 758년(신라 경덕왕 17년)에 발징 화상이 정신·영순 등과 함께 호국불교 염원을 담아 염불만일회를 결성해 회향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1908년 금암 의훈 스님이 다섯 번째 염불만일회를 개설해 회향했다. 이로써 전국염불만일회는 여섯 번째 공식 회향 기록을 남기게 됐다.

안 회장은 1만일 회향을 앞둔 소회를 '환희심'이라고 밝혔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염불 공덕이 10이라면, 1은 사후에 극락왕생하는 것이고 9는 금생에 이뤄진다고 하지요. 저 역시 염불 공덕으로 공직에 봉사하며 무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만일 동안 함께 정진해 준 도반들께 무한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신심 깊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관세음보살'을 염불했고, 그가 다섯 살 되던 해 충남 예산 향천사를 찾아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했다. 대학 시절에는 황산덕 박사의 저서 〈열반종요〉, 〈복귀〉 등을 통해 불교 사상에 눈을 떴고, 세계불교대강좌에서 들은 청담 스님의 법문에 불교에 대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그러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78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쁜 현실에 불교가 자리할 여유가 좀처럼 없었다.

그러던 1993년 봄, 그는 다시 불교를 마음의 의지처로 삼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계기였다. 인생의 지남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의 죽음은 큰 상실로 다가왔다.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던 그는 송광사에서 열린 4박 5일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다. 무작정 서울 조계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삶의 전환점'이 된 김재일 법사도 만났다. 김재일 법사는 1982년부터 재가수행단체인 동산반야회를 결성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교육과 염불수행을 지도했다. 1992년부터는 조계사 인근에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993년 9월 동산불교대학 3기로 입학한 그는 바쁜 변호사 업무 속에서도 통신반에 진학해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공부에 매진했고, 당대 최고 강사진의 가르침 속에서 정토수행에 매료됐다.

그러던 1998년 8월, 김재일 법사의 권유로 강원도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 입재식에 참여하게 됐다. 1500여 명이 한마음으로 염불하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염불에 집중하는 수행자들과 철야정진에 나선 노년 불자들의 열정에 감동한 그도 염불 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시기였던 만큼 그는 염불에 국난 극복의 마음을 담았다.

동산불교대 3기로 불교 공부 매진

58세 시작해 85세까지 염불 정진

매년 여름 정진대회서 수행 점검도

12월 21일, 염불만일회 회향 법회

"IMF로 모두가 힘들었죠. 나라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불 공덕 덕분인지 대한민국이 이례적으로 3년 만에 IMF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시작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58세였다. 1만일 염불 정진의 회향 시점을 계산해 보니 85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알아챈 딸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이어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응원을 건넸다. 그 한마디는 망설이던 그의 발심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렇게 염불은 자연스레 그의 일상이 됐다.

"불교에는 참선, 명상, 간경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어 참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염불은 이행도(易行道)입니다. 어려운 수행[難行道]은 지도자를 만나기도, 목적을 이루기도 쉽지 않은데 염불은 누구나 '나무아미타불'만 외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원효 대사도 말년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강조했는데 '노는 입에 염불'이란 말도 그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27년 5개월의 시간이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업무와 일정이 겹치는 날도 있었고, 몸이 뜻대로 따라 주지 않는 시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각자가 존귀하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부처님의 탄생게를 되새기며 염불을 멈추지 않았다. 하루에 염불을 많이 하지 못 하는 날이 있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반드시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자 수행자로서의 다짐이었다.

그에게 염불은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붙잡고,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고자 하는 서원과 같았다. 그는 염불의 '염(念)' 자를 '지금 금(今)' 아래 '마음 심(心)'이 결합한 글자로 풀이하며 염불수행의 본뜻을 "지금의 마음을 부처님처럼 하라"고 설명했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이고, 이를 다섯 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또 한자로 줄이면 '심(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단적으로 마음공부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뭇 번뇌에 쌓여 성불하지 못했기에 염불수행으로 부처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안 회장은 전국염불만일회 회장을 맡아 도반들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 쌓아 왔다. 붓다클럽 등 정진 모임을 꾸려 일상 속 염불을 이어 갔고, 매년 여름이면 염불정진대회를 열어 전국 사찰을 순례했다. 건봉사와 통도사, 송광사, 백담사, 미황사, 은해사, 불국사, 월정사, 직지사 등지에서 200~300명의 도반이 모여 함께 염불하며 서로의 정진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에는 만해마을과 건봉사 등공대에서 제28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해 그간의 정진을 돌아보고 수행 원력을 다졌다.

이제 1만일 염불 정진의 환희를 함께 나눌 회향 법회가 남았다. 회향 법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봉행된다. 법석에는 27년 5개월 전 만일 수행의 첫발을 함께 내디뎠던 300여 명의 도반들이 참석해 긴 세월의 염불수행이 맺은 결실을 함께 자축할 예정이다.

1만일은 회향하지만 그의 염불수행은 끝이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이어 온 정진이 쌓여 만든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습'이 돼야 한다. 이생에서 이루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에 이어 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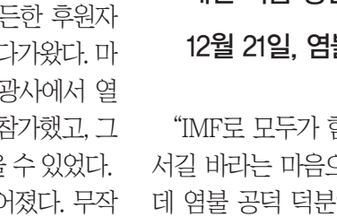
15년 전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에게 들은 한마디는 여전히 그를 염불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염불은 현재진행형이다.

"염불수행은 가장 빠른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아미타경〉을 믿고[信], 염불의 서원을 세우고[願],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염불해야 합니다[行]. 제 숨이 멈출 때까지 염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극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아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